



#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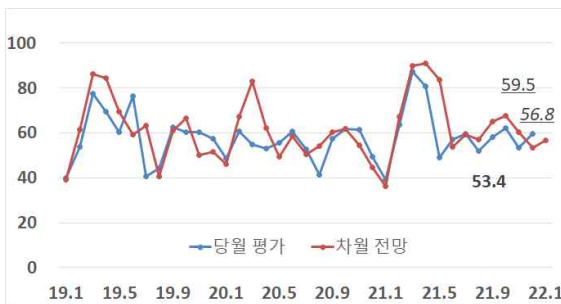
## I. 2021년 12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2년 1월 전망

### ■ 12월 지수는 상승, '22년 1월은 금월 수준 유지전망(전년 동월보다 원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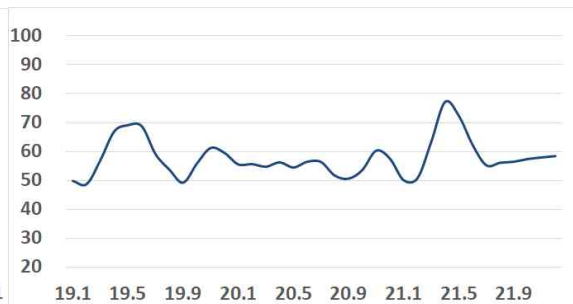
- 12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59.5로 전월(53.4) 대비 개선됨(+6.1p). 차월인 '22년 1월(56.8)도 금월과 큰 차이는 없을 전망이며, 이는 전년 동월(39.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또한 응답업체들은 대업종화의 시행에 따른 혼란,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업역충돌, 기능인력과 자재의 수급난 및 비용상승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5.6(60.0→65.6)으로 전월보다 개선화(+5.6p), 지방도 57.4(51.6→57.4)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5.8p).

〈표-1〉 2021년 12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2년 1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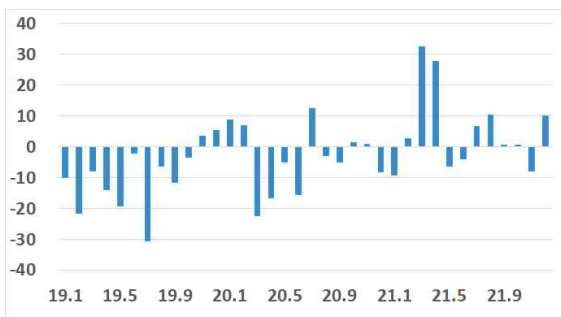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1년 12월 평가	59.5	65.6	57.4	63.2	56.7
2022년 1월 전망	56.8	68.8	52.7	78.9	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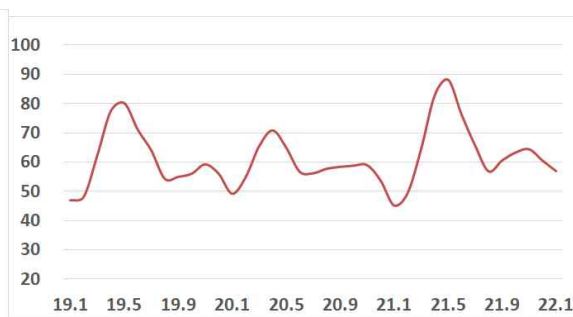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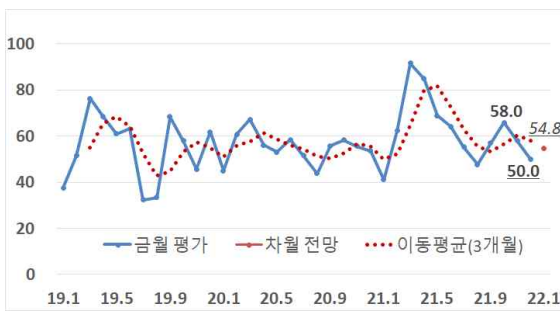
###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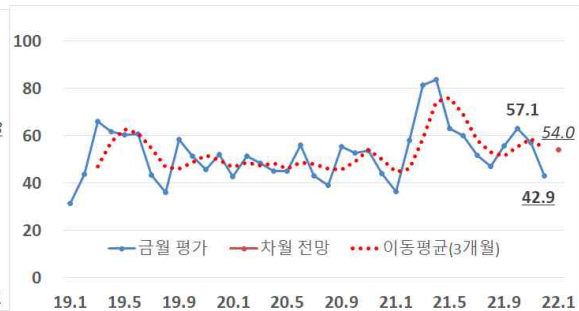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50.0(58.0→50.0)으로 전월보다 하락(-8.0p), 하도급수주는 42.9(54.6→42.9)로 하락폭이 더욱 컸음(-11.7p).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4.0→53.1)에서의 악화정도가 컸으며(-10.9p), 지방(56.4→48.9)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7.5p).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72.0→50.0)의 지수하락이 업황을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으며(-22.0p), 지방(53.2→40.4)도 하락세를 나타냄(-12.8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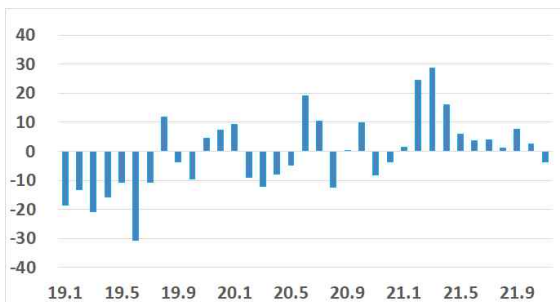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1년 12월 평가	50.0	53.1	48.9	47.4	50.0
	2022년 1월 전망	54.8	46.9	57.4	42.1	70.0
하도급 수주	2021년 12월 평가	42.9	50.0	40.4	42.1	50.0
	2022년 1월 전망	54.0	53.1	54.3	52.6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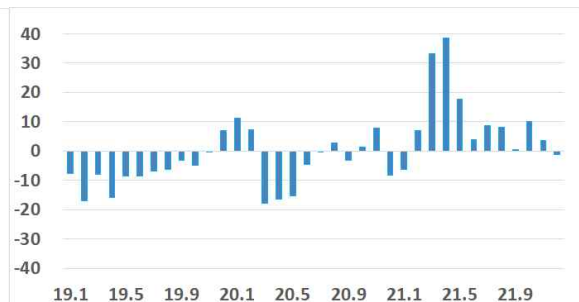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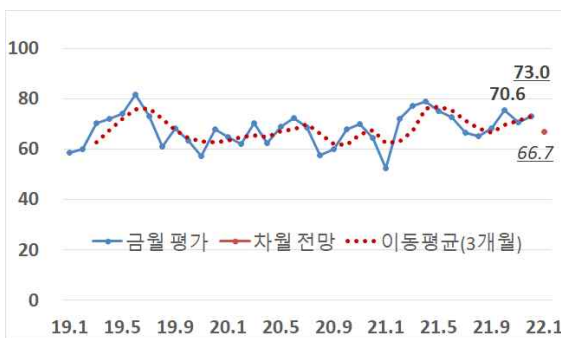
##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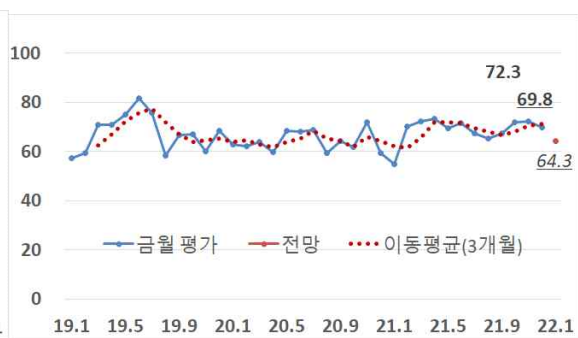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73.0(70.6→73.0)으로 전월수준을 유지했으며(+2.4p), 여전히 전년 동월(64.3)보다는 원활한 상황임.
  - 수도권(76.0→75.0)에서는 전월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으며(-1.0p), 지방(69.1→72.3)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3.2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69.8(72.3→69.8)로 전월과의 차이는 미미했으며(-2.5p), 전년 동월(59.5)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준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80.0→81.3)은 전월과 비슷했으나(+1.3p), 지방(70.2→66.0)에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4.2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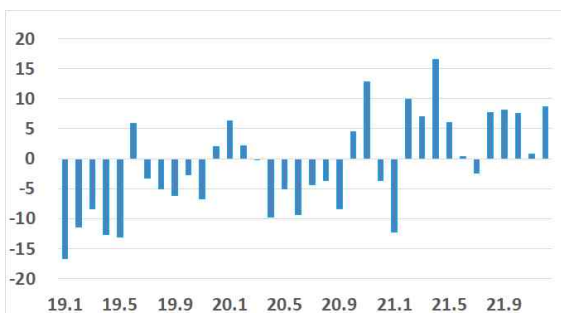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1년 12월 평가	73.0	75.0	72.3	78.9	76.7
	2022년 1월 전망	66.7	65.6	67.0	73.7	63.3
자금조달	2021년 12월 평가	69.8	81.3	66.0	84.2	80.0
	2022년 1월 전망	64.3	65.6	63.8	78.9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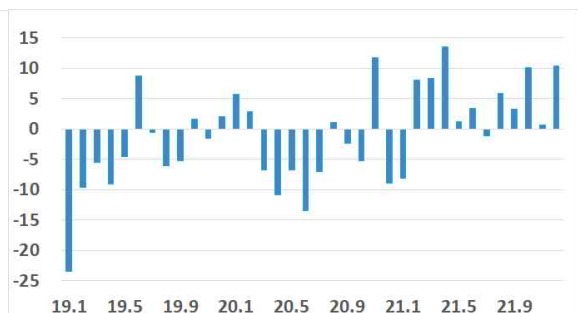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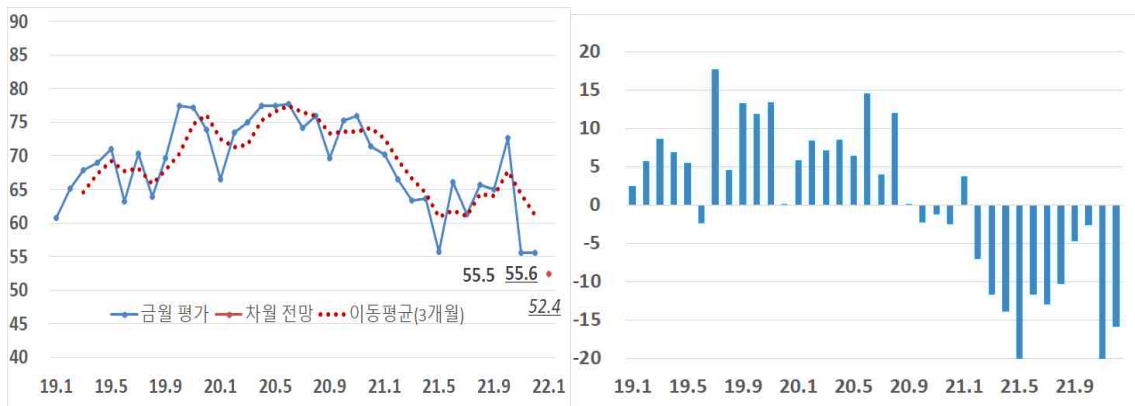
###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 인건비체감은 전월 수준, 기능인력수급은 소폭 개선

- 인건비체감<sup>1)</sup> 경기실사지수는 55.6(55.5→55.6)로 전월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보였지만(+0.1p), 여전히 전년 동월(71.4)과는 큰 격차를 나타냄.
  - 지역별로는 수도권(64.0→53.1)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으며(-10.9p), 지방(53.2→56.4)에서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됨(+3.2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sup>2)</sup>는 72.2(67.2→72.2)로 전월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며(+5p), 차월인 2월(81.7)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68.0→68.8)은 전월 수준과 비슷(+0.8p), 지방(67.0→73.4)에서는 전월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6.4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1년 12월 평가	55.6	53.1	56.4	63.2	56.7
	2022년 1월 전망	52.4	53.1	52.1	63.2	50.0
인력수급	2021년 12월 평가	72.2	68.8	73.4	73.7	63.3
	2022년 1월 전망	81.7	81.3	81.9	89.5	66.7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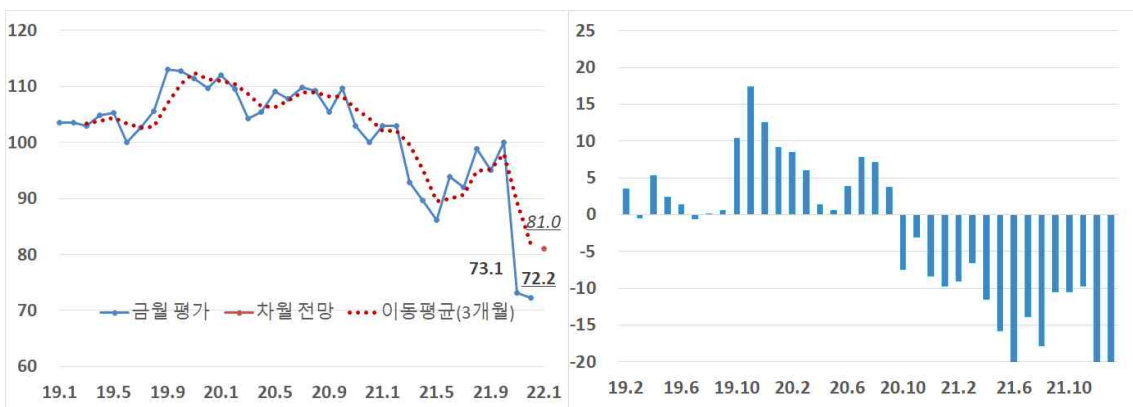
##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자재수급<sup>3)</sup>)

### ■ 자재비 지수는 부정적, 자재수급지수도 예년보다 악화

- 자재비<sup>4)</sup> 경기실사지수<sup>5)</sup>는 31.0(19.3→31.0)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나(+11.7p),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 차월(41.3)에는 더욱 개선될 전망이지만 전반적인 건설자재의 가격이 쉽게 안정될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실제로 주요 자재인 철근의 경우에도 작년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격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더해 현 시점이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동계라는 점도 감안해야 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16.0→34.4)에서 큰 폭의 개선을(+18.4p), 지방(20.2→29.8)도 동일하게 지수상승을 보였음(+9.6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2.2(73.1→72.2)로 전월과 유사했지만(-0.9p), 여전히 전년 동월(100.0)과 비교하면 크게 악화된 상황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68.0→71.9)에서는 소폭 상승(+3.9p), 지방(74.5→72.3)에서는 소폭(-2.2p)한 것으로 조사됨.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1년 12월 평가	31.0	34.4	29.8	36.8	26.7
	2022년 1월 전망	41.3	40.6	41.5	47.4	40.0
자재수급	2021년 12월 평가	72.2	71.9	72.3	68.4	63.3
	2022년 1월 전망	81.0	81.3	80.9	89.5	66.7



〈자재수급〉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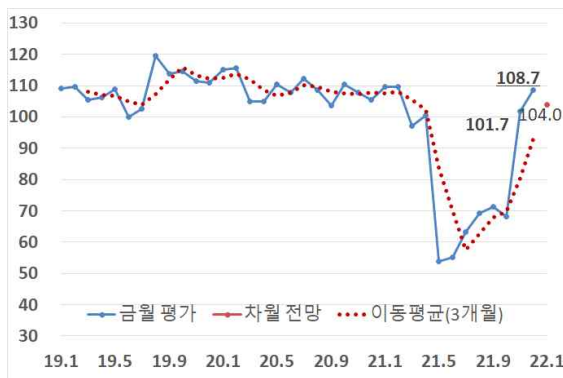
##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 장비임대료지수는 소폭 개선, 장비수급지수는 개선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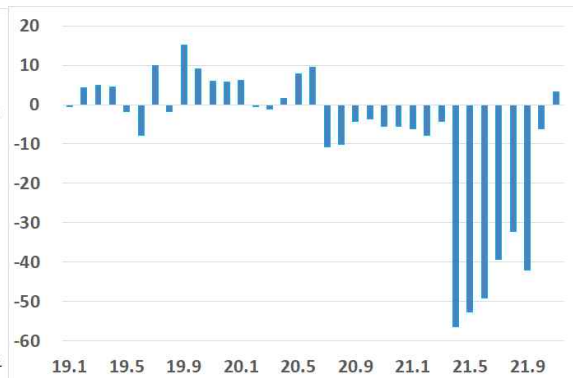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9.8(65.5→69.8)으로 소폭 개선되었지만(+4.3p), 차월(63.9)에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5.9p). 다만 건설장비와 관련된 지수는 업황의 활황과 지수의 개선이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72.0→62.5)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반면(-9.5p), 지방(63.8→72.3)에서는 오히려 개선세를 나타냄(+8.5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도 108.7(101.7→108.7)로 전월에 이어 개선세를 지속했으며(+7p), 금월에는 전년 동월(105.4)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100.0→93.8)에서는 소폭의 하락을(-6.2p), 지방(102.1→113.8)에서는 전월의 수준을 유지함(+1.7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임대료 체감	2021년 12월 평가	69.8	62.5	72.3	68.4	73.3
	2022년 1월 전망	61.1	56.3	62.8	68.4	66.7
장비수급	2021년 12월 평가	108.7	93.8	113.8	89.5	106.7
	2022년 1월 전망	104.0	100.0	105.3	100.0	93.3



〈건설장비수급〉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 참고: 2021년 1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전체	지역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59.5	65.6	57.4	63.2	56.7
		차월 전망	56.8	68.8	52.7	78.9	56.7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50.0	53.1	48.9	47.4	50.0
		차월 전망	54.8	46.9	57.4	42.1	70.0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42.9	50.0	40.4	42.1	50.0
		차월 전망	54.0	53.1	54.3	52.6	63.3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73.0	75.0	72.3	78.9	76.7
		차월 전망	66.7	65.6	67.0	73.7	63.3
	자금조달	금월 평가	69.8	81.3	66.0	84.2	80.0
		차월 전망	64.3	65.6	63.8	78.9	70.0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55.6	53.1	56.4	63.2	56.7
		차월 전망	52.4	53.1	52.1	63.2	50.0
	인력수급	금월 평가	72.2	68.8	73.4	73.7	63.3
		차월 전망	81.7	81.3	81.9	89.5	66.7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31.0	34.4	29.8	36.8	26.7
		차월 전망	41.3	40.6	41.5	47.4	40.0
	자재수급	금월 평가	72.2	71.9	72.3	68.4	63.3
		차월 전망	81.0	81.3	80.9	89.5	66.7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9.8	62.5	72.3	68.4	73.3
		차월 전망	61.1	56.3	62.8	68.4	66.7
	장비수급	금월 평가	108.7	93.8	113.8	89.5	106.7
		차월 전망	104.0	100.0	105.3	100.0	93.3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